

# 『정법강의 1강 가이드북: 정초 해맞이의 바른 자세』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요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하기 위해 산이나 바다로 많이 갑니다. 해맞이 하러 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진정한 해맞이의 의미** 해맞이는 단순히 해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대자연의 기운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는 진심어린 기도와 감사의 의식이다. 단순한 소원을 빌기 위해 산과 바다를 찾기보다는, 더 큰 뜻과 마음가짐을 가진 이들이 가야 한다.

**산과 바다의 에너지 구조** 산은 힘의 기운(3), 바다는 운용의 기운(7)을 지닌다. 산은 병든 몸과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장소이며, 바다는 실연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혜를 얻는 공간이다. 각 장소의 에너지 성격에 맞는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집에서의 기도도 충분하다** 집 옥상이나 거실에서도 대자연과 연결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해가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며, 진실된 마음과 감사가 대자연에 닿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수행자의 산 오름 원칙** 작은 뜻은 산 아래에서, 큰 수행은 중간 능선에서, 정상은 수행이 완성된 자만이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면의 겸손과 충분한 내공이 필요하며, 무리한 접근은 수행의 단절을 초래한다.

**겸손은 수행의 척도다** 수행자는 겸손으로 내공을 드러내며, 내면의 성장이 깊을수록 겸손은 더욱 커진다. 반면, 겉으로 드러나는 자만은 지식과 내공의 부족을 반증한다. 수행의 깊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동해 해맞이의 조건** 동해로 가는 해맞이는 가벼운 소망이 아닌 인류를 향한 큰 뜻을 품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 큰 기운을 받아 그것을 사회와 인류를 위해 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무지한 해맞이의 위험성**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무작정 산과 바다로 몰려가는 해맞이는 자연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마음가짐 없이 행위만을 쫓는 해맞이는 대자연의 기운을 거슬릴 수 있다.

# 『정법강의 2강 가이드북: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친구가 공사 입찰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리베이트를 주는데 이 일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양심의 가책은 변화의 신호다

어느 날 문득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직업적 전환기이자, 삶의 한 국면이 정리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 사회 구조에 맞춘 역할 수행

현재 사회가 리베이트나 비정상적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 사회에 맞춰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넘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 양심과 실력의 관계

리베이트 없이도 자리를 지키려면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력 없는 양심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사회에서 도태된다. 실력을 쌓아야 양심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도둑과 사기꾼도 자연의 일부

도둑이나 사기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이 발생한 것이다. 대자연의 조화 속에 그들의 존재도 하나의 기능이며, 그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으면 떠나야 한다.

## 양심적이라는 착각의 실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저 심리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다. 현실의 궁핍 속에서는 양심보다 생존이 우선이며, 여유가 생기니 명분을 찾기 위해 '양심'을 꺼내드는 것이다. 진정한 양심은 조건 없이 작동해야 한다.

## 경쟁사회와 생존 논리

현대는 경쟁 사회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운의 문제로 봐야 하며,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 『정법강의 3강 가이드북: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남편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직장생활 중에도 종종 이런 성격 때문에 충돌이 생기곤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절제하려고 하지만,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본질

불의를 보고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충돌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간주된다. 감정의 폭발 이전에 환경을 깊이 관찰할 수 있어야 높은 에너지의 소유자다. 불의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진정한 정의 판단이 가능하다.

## 충돌은 판단 미숙에서 온다

감정적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한 판단이 사회나 대자연의 답이 아닐 수 있다. 분별 없이 행동하면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고, 결국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공정한 개입의 방식

남의 일에 개입하려면 먼저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싸움 현장에서는 어느 편도 들지 말고 경찰 같은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이 사회의 지팡이 역할을 하며, 공정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 3대 7 법칙의 적용 원리

모든 충돌에는 양측의 잘못이 공존하며, 비율은 정확히 3대 7이다. 70% 잘못된 쪽이 먼저 사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이 반복된다. 싸움은 절대 한쪽 잘못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 답답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갈등의 원인은 늘 더 답답한 쪽에 있다. 상대가 화가 났다면, 그 화가 나게 만든 사람이 70%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도둑맞은 사람도 그 상황을 만들었기에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철학이다.

## 피해자 책임론의 법칙

사기나 도둑질도 피해자가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기를 당한 것은 그만한 바탕을 제공했기 때문이며, 그 바탕을 깨닫기 전까지 유사한 피해는 반복된다. 피해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사회적 역할로서의 사기꾼

사기꾼도 하나의 역할로 기능하며, 사기를 제대로 쳐야 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 경찰에 잡히는 사기꾼은 실력 없는 사기꾼이며, 이는 바르게 못한 것이다. 사기는 탐욕에 대한 대자연의 조절 작용일 수 있다.

## 싸움의 원인자는 누구인가

싸움을 먼저 유발한 사람, 즉 상대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70%의 잘못을 지닌다. 맞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다. 상대를 자극해서 싸움을 유도한 책임이 크다면, 그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 과거의 응어리가 현재 싸움을 유발

현재의 갈등은 대부분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서 기인한다.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짚고 사과를 통해 정리해야만 진정한 해결이 된다. 참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반성이 동반되어야 마무리된다.

## 진정한 싸움의 종결 조건

싸움을 끝내려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사과가 없으면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며, 내면의 응어리가 남는다. 싸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기 성찰이 필수다.

# 『정법강의 4강 가이드북: 잘못된 사과』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부인은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고, 남편은 급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화해 과정에서 남편이 분위기를 건디지 못해 싸움을 무마하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먼저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사과하는 쪽이 정말로 잘못이 더 많은 걸까요?

## 억지 사과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사과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는 것이다. 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후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짓 사과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사과는 진정한 깨달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과는 잘못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반성했을 때 의미가 있다. 단지 상대를 달래기 위해 하는 사과는 상대에게 무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사과는 가벼운 결과가 아닌, 무거운 후유증을 낳는다.

## 거짓 사과는 약점이 된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과하면,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 약점은 반복될수록 커지며, 나중에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도 공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상대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갈등을 주도하게 된다.

## 각서와 증거의 덫

억지 사과가 누적되면, 그것은 문서나 녹음, 문자로 남게 된다. 사소한 갈등 해결을 위한 사과가 쌓이면, 나중에 이혼이나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도와 관계없이 진술로 남은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된다.

## 분위기 무마는 해법이 아니다

급한 마음에 분위기를 넘어가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인식하고 차분히 대화할 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감정을 정리할 시간과 상황을 되짚는 성찰의 순간이 먼저 필요하다.

## 좋은 사람이 되려다 손해 보는 구조

다툼 속에서 먼저 양보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종종 착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상은 상황을 왜곡시킨다. 착한 척, 유순한 척은 자칫 상대의 요구를 강화시켜 스스로를 불리한 처지로 만든다.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되는 자책으로 이어진다.

## 사과의 반복은 비굴함으로 이어진다

문제를 넘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존엄을 해친다. 사소한 양보가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 이상의 양보는 지양해야 한다.

## 비굴한 태도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사람은 문제를 피하거나 비굴한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피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키우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 바른 해결에는 용기 있는 침묵도 필요하다

모든 문제 상황에서 사과나 말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보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정확한 판단 없이 던지는 사과는 관계의 틈을 왜곡시킬 수 있다.

## 갈등은 대화가 해답이다

잘못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과보다 대화와 분석이 우선이다. 감정의 회오리를 진정시키고, 갈등의 핵심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법이 열린다.

# 『정법강의 5강 가이드북: 용서』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얼마 전 오늘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주인공이 자신의 선부른 용서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주인공의 용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 용서는 인간의 권한이 아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자연이 결정할 문제다. 인간은 그저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잘못된 용서는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부를 수 있다.

## 용서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스스로 우쭐해지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왜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깨달음이 없는 용서는 무의미하다.

## 잘잘못은 고통의 크기로 판단된다

누가 더 아픈가가 잘못의 비율을 나타낸다. 3대 7 법칙에 따라 더 큰 고통을 겪는 쪽이 더 많은 잘못을 가진 것이며, 이는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고통을 통해 나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 가해자는 역할일 뿐이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는 단지 대자연이 설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처벌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환경이 바뀐 것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 용서가 아닌 정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감정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감정에 휩싸여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분석해야 한다. 사건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기도로도 타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대자연에 타인의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잘못된 방식이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타인을 잘못된 사람으로 고정 짓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한 인식이다.

## 나의 잘못을 찾는 것이 먼저다

사건이 생겼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바탕을 만들어 그 일이 발생했는지를 성찰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반성이다.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용서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다.

##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깨우침은 스스로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도와줄 실력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종교나 상담의 길을 택하더라도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변화가 시작된다. 실력 없는 이에게는 해답을 구할 수 없다.

##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반복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된다. 사고, 사기, 욕설, 갈등 등이 재차 반복되는 이유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

## 용서라는 단어는 경고의 신호다

‘용서’나 ‘복수’라는 말은 우리가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깨우치게 해주는 경고의 언어다. 이를 실천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순간 오히려 화를 부른다. 사람은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라, 깨우치고 정리하는 존재다.

# 『정법강의 6강 가이드북: 인복』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유독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딱딱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인복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인복이라는 것이 사주 상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복 있는 사람은 바르게 잘 살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인복의 개념 재정립

인복이란 단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사람의 존재를 의미한다. 물질적인 도움보다 중요한 것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다. 진정한 인복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자극이다.

## 물질적 도움은 인복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인복이 없는 것이다. 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복 있는 삶이다.

## 진짜 인복은 따끔한 충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따끔한 말과 바른 조언이야말로 진정한 인복이다. 충고해주는 사람을 인복이라 여기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반발하면 인복을 건어차는 것이다. 정신 못 차릴 때 일침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인복이다.

## 경제적 지원의 한계와 오해

단순히 돈이나 쌀을 준다고 도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도움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깨우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돕는다면 시간과 노력까지 함께 투자해야 진짜 도움이 된다.

## 남의 도움에 의존하면 반복되는 고난

물질적 도움을 반복해서 받으면 사람은 무뎌지고, 같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 진짜 도움이 되지 않기에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비굴한 쪽으로 흘러간다. 반복되는 고난은 해결되지 않은 삶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 도움은 깨우침을 이끌어야 한다

정말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다. 단순한 동정보다 냉철한 분별이 필요하다.

## 무주상보시 개념의 비판

‘도와주어도 도왔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개념은 현실을 외면한 말장난일 수 있다. 실질적 도움을 줬다면 책임까지 지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운 자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 대자연의 시험과 인과

도움을 줬다고 스스로 만족하면, 대자연은 그것이 진심이었는지를 시험한다. 도운 사람이 실패하고, 도움 받은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그 감정에서 진심 여부가 드러난다. 대자연은 항상 사람을 공부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 정법은 모순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모순으로 가득 찬 시대였으며, 그 모순을 바탕으로 정법이 태어난다. 착하다는 이유로 한 행위가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금은 지식사회에 걸맞은 바른 분별이 요구되는 시대다.

## 착함과 바름의 구분이 중요하다

착하다는 것은 감정에 이끌리는 동정심이고, 바르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다. 정법 시대에는 감정보다 이성, 착함보다 분별을 우선시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면 상대도 자신도 망치게 된다.

『정법강의 7강 가이드북: 깨달음 - 여여하게 살고 싶다』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비난이나 칭찬에도 취하지 않고 바람 소리처럼 그 말을 흘리고 시냇물처럼 걸림 없이 그렇게 여여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요?

### **여여함은 깨달음의 결과다**

바람 소리처럼 흐르고 시냇물처럼 걸림 없는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여여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삶의 본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

### **칭찬에 도취되지 않는 경지**

진짜 큰일을 해낸 사람은 작은 칭찬에 들뜨지 않는다. 그는 이미 더 큰 차원의 자각을 이루었기에,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이 아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크게 깨달은 자다.

### **깨달음은 노력으로 다가가는 여정**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의 최고 수준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면, 그에 합당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깨달음은 부처만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따른 것이다.

### **자기 자리에 맞는 깨달음**

노동자, 상인, 지도자, 부모 등 모든 사회적 역할에는 그에 맞는 깨달음이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결국 자신의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자리를 이해해야 삶이 편안해진다.

### **남의 깨달음을 흉내내지 말라**

부처의 깨달음을 좇는 사람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수행자는 자신의 근기와 신분에 맞는 방법으로 깨달아야 한다. 남의 길을 쫓아가는 한 진정한 자각은 불가능하다.

### **각자의 삶에 따른 수행 방식**

시장 상인과 교육자의 수행 방식은 다르며, 고기 장수와 고구마 장수의 수행도 다르다. 각자가 서 있는 환경에 따라 수행 방식과 깨달음의 길은 달라야 한다. 시대와 조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깨달음은 삶의 결과로 주어진다**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정리와 역할의 충실함이 핵심이다. 물 흐르듯 여여한 삶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 **깨달음의 정도는 삶의 질로 드러난다**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는 내 삶의 평온함, 타인의 반응, 그리고 내 행동에서 드러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삶이 바로 깨달음의 증거다.

### **크게 깨닫는다는 것의 의미**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 기준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깨달음이다.

### **정법 시대의 깨달음이란**

이제는 모순을 거름 삼아 정법이 탄생하는 시대다. 남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정법적 깨달음이다. 여여하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 『정법강의 9강 가이드북: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그러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 깨달음은 지식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 얕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이고, 깨달음은 그 정보의 본질을 체화한 내면의 변화를 말한다. 지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깨달음의 첫 문이 열린다.

## 지식은 에너지이며 인류의 집적체다

지식은 수천 년 인류의 삶에서 나온 에너지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혼이다. 지식을 흡수했다면, 그 지식이 왜 내게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지식의 본질을 파고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가갈 수 있다.

## 스스로 있는 자,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

진정한 지식인은 자신의 지식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류와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적인 욕심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대자연은 법칙을 설정해 놓았다. 큰 지식을 가진 자일수록 더 큰 공적 원을 세워야 한다.

## 축언과 하늘에 무릎 꿇는 순간

진정으로 깨우친 자는 하늘에 무릎 꿇고 자신의 뜻을 올린다. 이것이 축언이며, 그 뜻이 받아들여질 때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삶이 변화한다. 지식을 불살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길이다.

## 지식인은 인류의 한을 푸는 자

과거 수많은 영혼들이 남긴 한과 희생의 에너지를 지식으로 흡수한 자는 그 한을 풀어주는 책임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선, 역사적 응보와 대자연적 순환에 기여하는 역할이다. 지식인은 공인이 되어야 한다.

## 공적 삶을 사는 법

사적 욕망을 내려놓고 이웃, 사회, 국가, 인류를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한다. 작은 지식엔 작은 공이, 큰 지식엔 큰 공이 요구된다. 삶의 범위와 책임이 넓어질수록 그에 맞는 덕과 지혜가 필요하다.

## 스승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깨달음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지식, 경제, 기술 등을 모두 갖춘 자는 더 이상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때 스승을 만나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를 만지기 시작하면 진짜 공부 시작된다.

## 지혜의 시대, 제3의 물결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 제3의 물결은 지식인의 각성과 실천을 통해 시작되며, 각성한 한 사람의 기운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정법의 시대는 그 서막에 있다.

##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고뇌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결정짓는 실천적 명제다.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이 질문의 핵심이다. 결국 '나는 인류를 위한 일꾼'이라는 깨달음으로 수렴된다.

## 공인이 되지 않으면 무계에 눌린다

갖춘 자가 공적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무계에 짓눌려 삶이 고통으로 전락한다. 반대로 공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늘의 힘을 받아 어려운 세상을 녹이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이 정법 시대의 지식인이 걸어야 할 길이다.



# 『정법강의 10강 가이드북: 깨달음3 – 젊은이들도 깨달을 수 있나요?』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저는 20대입니다. 내가 갖추 것을 다 갖추면 스승을 만나서 깨우침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른이 되어야만 깨우침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금메달을 딴다거나 1등이 되어 그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젊은이들도 어린 나이지만 스승을 만나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지요.

##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

깨달음은 단지 알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근기를 지닌 자에게만 주어진다. 젊은 세대는 열심히 살 수는 있으나, 나를 불태우는 공인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 깨달음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운을 타고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다.

## 깨우침의 대상은 아날로그 세대

1952년부터 1988년까지의 아날로그 세대, 특히 그 중심인 1964~1976년생은 이 시대의 구세주로 규정된다. 이들은 지식, 노동, 고통 등 인류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품은 세대로, 스스로를 태워 이 세상을 밝힐 사명을 지닌 자들이다. 깨달음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사명이자 책무다.

## 깨달음이란 나를 태우는 일이다

깨달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그 공덕조차 탐하지 않는다. 나를 불태우고 모든 것을 헌신한 자만이 참된 부처가 된다. 이는 부처가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써 부처가 되는 것이다.

## 젊은이에게는 알면 족하다

젊은 세대는 깨달음이 아닌 ‘앎’의 경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역할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사명이 나뉜다.

## 공심을 가진 자가 종교의 새 개념을 연다

공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의 개념조차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 신, 네 신이 아닌 ‘하나의 신’ 개념이 통합되어간다.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래한다.

## 갈구하는 삶이 에너지를 만든다

디지털 세대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날로그 세대는 길을 찾고자 갈구하는 세대다. 이 갈구는 천지창조 이후 최초로 나타나는 고귀한 에너지이며, 이로 인해 하늘이 움직이고 세상이 변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천지개벽’이다.

##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개념이 바뀐다

앞으로 종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정리’될 것이다. 종교의 본질이 새롭게 재정립되며, 신의 개념도 새롭게 이해된다. 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깨달은 자는 이것을 통찰하게 된다.

## 공도 사상의 도래

사적 욕망을 버리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도 사상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공도는 모든 사상을 흡수하여 하나로 정리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궁극적인 평화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 깨달은 자들은 이 공도 사상의 전달자다.

## 부처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부처는 훈련이나 종교적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삶 자체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삶, 공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살리는 삶에서 진정한 부처의 길이 열린다. 부처란 ‘나를 태운 자’다.

## 지금은 환골탈태의 시대

이 시대는 사람의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변하는 시기이며, 이는 곧 천지개벽이다. 삶의 본질이 바뀌며 신앙의 방향도 새롭게 잡힌다. 진정한 변화는 외형이 아닌 내면에서, 사상과 개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 『정법강의 11강 가이드북: 깨달음4 – 여여하게 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저희들이 이번 생을 마칠 때쯤 되면 여여하게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마치겠네요?

## 여여하게 죽음을 맞으려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삶을 여유롭게 마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해야 한다. 갖추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지식인은 아직 삶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여여함’은 공덕의 결과이지, 바라기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 지식인의 책임은 더 크다

지식인은 백성들의 희생 위에 지식을 얻은 존재다. 따라서 그 지식은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반인이 할 일을 해놓고 만족해서는 안 되며, 지식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한다.

## 죄의 소멸은 올바른 삶에서 온다

기도나 신앙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소멸하려면 온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하며, 그 삶이 타인에게 이로울 때 비로소 영혼이 가벼워진다. 무거운 자는 천국에 닿을 수 없다.

## 천국은 가벼운 자의 공간이다

천국은 땅이 없는 곳이기에 무거운 영혼은 머무를 수 없다. 바른 삶을 통해 죄를 없애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진정한 귀의이며 천국행의 조건이다.

## 역사적 희생은 다음 생을 위한 토대가 된다

유관순이나 안중근 같은 인물들은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며 삶을 마쳤지만, 그것이 완전한 공적 헌신은 아니다. 그들의 희생은 다음 생에서 더 큰 길을 걷기 위한 토대를 닦은 것이며, 그 에너지는 후대가 이어받아야 한다.

## 오늘날 지식인의 사명

지식인은 조상의 희생과 한을 먹고 자란 존재로서, 그들을 위한 길을 닦고 법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앎을 넘어, 그 지식을 실현하고 질서로 구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자주독립의 기준은 ‘우리 법’을 세우는 데 있다.

## 홍익인간의 법을 세워야 한다

지식인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홍익의 법을 생산해야 한다. 이 법이 세워져야 진정한 자주독립이 가능하고, 인류공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의 법이 아닌 우리만의 법이 필요하다.

## 오늘날은 지혜를 펼칠 시기다

이제는 지식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모든 것이 준비된 지금은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 실천의 시대다.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의 때다.

## 대자연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자연의 에너지가 집중된 중심지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이미 최상의 기반을 갖췄으며, 국민은 충분히 준비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지식인들이 지혜를 펼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때다.

## 바르게 살면 천국은 자동으로 열린다

천국을 바라기보다는 오늘을 바르게 살면 된다. 내 삶이 남을 돕고 이롭게 하는 삶이라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천국은 그 앞에 열린다.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과 책임이 천국을 여는 열쇠다.

# 『정법강의 12강 가이드북: 아예 화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화가 살짝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도 스승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치밀어 오르는 정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2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 화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라

화를 억누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진짜 해법은 화가 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화는 내가 무심코 지은 잘못들이 쌓여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알면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된다.

## 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나를 돕는 자다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은 나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는 대자연의 장치다. 이들은 나에게 학습을 주는 선생 역할이며, 내가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화는 사라진다.

## 3대 7의 법칙: 책임의 분배

화를 낸 상대방에게도 30%의 잘못은 있으나, 나에게 70%의 원인이 있다. 이를 이해하면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자꾸 남을 원망하면 더 큰 화가 준비된다.

## 나의 잘못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의 말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의 잘못이 원인일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남의 탓을 그만두고 나를 반성하면 대자연은 나를 도와준다. 이 반성적 태도가 인생을 밝히는 시작이다.

## 화가 줄었다면 공부는 이미 시작되었다

화가 100에서 20으로 줄었다면 공부가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나 남 탓 없이 전적으로 나를 돌이켜보려는 자세가 되어야 진정한 화 해소가 된다. 듣기 싫은 말을 내게 필요한 약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 게으른 사람도 쓸모가 있다

집단에서 게으른 사람은 때로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70% 이상 게으르면 저절로 조직에서 밀려난다. 이런 자연스러운 배제 메커니즘을 신뢰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 갈등은 사람 수만큼 커진다

혼자 살면 갈등이 없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특성과 충돌이 생긴다. 부지런함, 눈치, 재치, 게으름 등 서로 다른 기질이 모일수록 그 다양성 속에서 삶의 공부가 이루어진다. 모든 특성은 이유가 있으며, 조화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 내 몫 이상으로 일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

남보다 더 일한다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내 부지런함은 또 다른 미덕으로 보완되며,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끈다. 게으른 사람조차도 때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 남 탓하는 무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을 헐뜯고 탓하는 무리는 결국 함께 벌을 받는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맑아지고, 나쁜 무리에 있으면 나도 물들게 된다. 외롭더라도 나쁜 무리에서 나와야 내가 망하지 않는다.

## 남 탓은 권한이 없다

남을 탓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받은 권한은 자신을 바로잡고 반성하는 힘이다. 이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면 삶이 나아지고, 대자연은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이 정법이 가르치는 화 다스리기의 핵심이다.

# 『정법강의 13강 가이드북: 취직은 하지 않고 봉사활동만 하는 아들』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외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봉사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이러한 아들에게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자녀의 선택은 부모의 양육에서 비롯된다

자녀가 봉사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향이다. 부모는 자녀의 현재 행동을 걱정하기에 앞서, 그 배경에 있는 자신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부모의 시선보다 자녀의 관점에서 이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봉사활동은 공부의 연장이다

취업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실천적 학습이다. 이 시기의 경험은 향후 사회에 나가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걱정하기보다 학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

## 착함에만 치우치면 문제다

지나치게 착하게만 자녀를 키운 경우, 현실에서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 봉사에만 몰두하게 될 수 있다. 봉사는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사회 적응과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라면 조율이 필요하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 봉사로 사회 모순을 체험하고 해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는 봉사의 경험은 사회의 문제를 직접 목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험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순한 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적 성장을 동반해야 한다.

## 자녀의 봉사는 의미 있는 준비다

젊은 시절의 봉사활동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에 공헌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는 이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일을 위한 준비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자신만의 사명과 길을 찾게 된다.

## 과잉 걱정은 부모 자신의 문제로 돌아온다

자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걱정만 한다면, 그 책임은 부모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는 대자연의 원리이며, 바른 분별 없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지속적인 봉사는 관찰이 필요하다

봉사가 진짜 공부가 되는지, 아니면 회피인지 구별하려면 자녀의 하루 마무리 태도를 살펴야 한다. 매일 경험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태도는 진정한 학습의 증거다. 반대로 아무 정리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 기록하고 정리하는 자는 성장한다

작은 일이라도 하루하루 정리하는 습관은 지식과 통찰을 만들어낸다. 기업인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봉사를 통해 성장하는 이도 결국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게 된다. 이는 향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기반이 된다.

## 젊은 시절은 돈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30대 이전의 삶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방향을 정립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 자만이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 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원해야 한다.

## 공부하는 자는 반드시 성장한다

자신을 정리하고 내면을 다지는 자는 결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한다. 봉사활동이든 다른 활동이든 정리와 성찰이 있다면 그것은 공부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주면 된다.

# 『정법강의 14강 가이드북: 봉사하러 가는 이유』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자신이 돌보아 주었던 아이가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밝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에 빠진 것이 아닌가요?

## 감정에 치우친 봉사는 위험하다

봉사 대상에게 정이 지나치게 가는 것은 착한 성향에서 비롯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태도는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감정 중심의 봉사는 본래 목적을 잃기 쉽고, 결과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식인은 균형 있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

## 봉사의 본질은 배우는 데 있다

봉사활동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리다.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 삶의 교훈과 사회의 본질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시각으로 임할 때 봉사는 진정한 자기 수양의 장이 된다.

## 정서적 몰입은 오히려 해가 된다

봉사현장에서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면,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본질을 모르고 돕겠다는 마음으로 잘난 척하거나 감정에만 치우치면,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봉사는 감정보다 이성적 학습이 우선이다.

## 봉사활동은 현장 실습이다

장애인시설이나 복지기관은 삶의 실험장이며 실습 현장이다. 이곳에 갈 때는 물질이나 재능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입장료를 지불하는 자세로 배우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 배우고 돌아와야 의미가 있다

봉사에서 무엇을 배워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무언가를 배우지 못했다면 단지 자기를 드러낸 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깊은 성찰과 배움을 얻고 돌아온 사람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갖게 된다.

## 봉사의 실패는 미래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

봉사의 본질을 모르고 접근하면 미래에 오히려 어려움이 닥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만은 위험하다. 봉사를 내가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배워 예방하는 것이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고 오는 과정이다.

##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은 왜 악화되었는가

전후 60년간 인구는 두 배 증가했지만, 복지 대상자는 수십 배 늘었다. 이는 우리가 사회 구조와 인간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교와 제도도 바른 삶을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

## 봉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라 상생이고, 감정이 아니라 학습이다. 우리는 봉사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진정한 도움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봉사의 의미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다.

## 사회적 약자는 비용이 드는 존재다

한 명의 약자가 생기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나 자신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하며, 이 건강은 바른 삶을 통해 가능하다.

## 정법의 이끄는 봉사 의식 개혁

지금이야말로 봉사의 본질을 되새기고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천공 스승은 이를 선도하며, 진정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함께 공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사회정신의 출발점이다.

# 『정법강의 15강 가이드북: 상대에게 다가가기』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어떤 사람이 제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가까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저를 싫어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럴 때는 다가가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빛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가요?

## 눈에 들어오는 인연, 어떻게 다가갈까

자꾸 한 사람이 눈에 밟히는 것은 인연이 맺어지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다가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감정보다分別이 앞서야 하며, 상대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 도움인가

도움은 주는 자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물질적 도움은 일시적 친밀감을 줄 수 있지만, 관계의 본질은 서로에게 유익한 성장과 상생에 있다. 단순한 지원은 오히려 상대를 망칠 수 있다.

## 물질로 인한 의존은 관계를 해친다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를 떠날 수 있다. 물질적 제공은 상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관계를 망가뜨린다. 도움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 진정한 관계는 배움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상대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마음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을 좋아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된다. 배움은 겸손과 존중의 표현이다.

## 가까워지는 두 가지 길

하나는 물질적 제공을 통해, 다른 하나는 배우고자 다가가는 것이다. 전자는 조심하지 않으면 의존과 불균형을 낳고, 후자는 상호 존중과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 배우는 자세가 상대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관계의 실패는 나의 방식의 오류다

상대가 나를 밀어낸다면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뉘통수를 맞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돕지 않았거나, 상대의 자존심을 해친 방식으로 다가갔다는 뜻이다. 관계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다.

## 물질은 함께 쓰는 것이다

내가 가진 물질도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나의 우월감이나 지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생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법의 말하는 바른分別이다.

## 상대의 특기에서 배움을 찾자

상대에게 물질은 없더라도 배울 만한 특기나 인격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겸손함의 실천이며, 그 관계는 오래간다. 배우려는 사람은 거부당하지 않는다.

## 관계를 만들려면 이해가 먼저다

상대의 필요와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다가가는 것은 나의 의도보다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관계가 시작된다.

## 진심과 겸손이 관계의 핵심이다

진심 없이, 배움 없이, 감정만으로 접근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정법은 진심과 겸손, 배움의 자세로 관계를 맺을 때 상생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는 바른 길이다.

# 『정법강의 16강 가이드북: 전생과 수행』

강사명: 천공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예전에 책에서 전생에 수행자로 산 사람은 수행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서 고관대작(공적인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저명한 인물)으로 살게 된다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이지요?

**전생은 집착의 잔재다** 이번 생에 강한 미련이나 집착을 남긴 채 죽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위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는 '전생의 잔재'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원리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바람이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다음 생의 삶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수행의 본질은 지식의 축적과 사회 기여** 수행은 단지 경을 읽거나 고행하는 것이 아니다. 바른 수행이란 세상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이롭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공덕을 쌓은 자는 다음 생에 보다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된다.

**고행은 수행이 아니다** 과거에는 잠을 자지 않거나 굶는 고행이 수행이라 여겨졌으나, 이는 고집스런 방식일 뿐 참된 수행이 아니다. 신체를 혹사하는 고행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며, 후세에 공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신통력과 수행은 다르다** 차원세계나 신과의 교신을 통해 신통력을 얻는 것과 수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통은 재주에 불과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지식을 갖추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공덕을 쌓는 데서 비롯된다. 능력이 있다고 깨달은 자는 아니다.

**윤회는 공덕의 반영이다** 이번 생에서 많은 공덕을 쌓은 자는 다음 생에 더 나은 조건으로 태어난다. 반대로 아무런 공덕도 없이 죽으면 다음 생은 하층 조건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는 수행과 삶의 결과가 전생과 다음 생을 이어주는 법칙이다.

**지식인은 최고의 수행자다** 오늘날 진짜 수행자는 사회적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깨우치면 선 지식이 되어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이제는 지식인들이 수행을 마무리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시점이다.

**공덕은 사회적 실천에서 비롯된다** 수행자는 세상을 정리할 답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 공덕이 쌓이면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과 환경을 얻게 된다. 이는 수행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천의 영역임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수행은 연습이었다** 과거의 다양한 수행 방식들은 연습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정법을 통한 바른 수행이 시작되어야 한다. 2013년부터 진짜 수행자들이 출현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고 본다.

**미신적 수행에서 과학적 수행으로 전환** 예전 방식의 수행과 신앙은 무지의 시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지식의 시대에 걸맞는 수행 개념이 필요하며,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지혜로운 분별력이 수행의 완성이다** 수행은 신통이나 고행이 아닌, 지식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의 문제다. 수행과 깨달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제는 지식인들의 바른 언어를 통해 정법 시대를 열어야 한다.

# 『정법강의 17강 가이드북: 전생 – 2. 검사와 도둑』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스승' 책에서 검사와 도둑은 기운이 같다고 하셨는데 전생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생에서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도둑이 되는 것이지요?

## 같은 기운, 다른 신분

검사와 도둑은 같은 인생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지만 삶의 방향이 다르게 전개된 경우다. 도둑은 배우지 않았고, 검사는 배워서 신분이 달라졌을 뿐, 그 근본 에너지는 같다.

## 붙어 사는 이유: 기운의 학습 구조

검사와 도둑, 교도관과 죄수처럼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가진 이들이 붙어 사는 이유는 상호 학습 때문이다.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머물며 경험과 교훈을 얻는 구조다.

## 정리와 기록의 힘

교도관이나 검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닌, 사회의 모순을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공덕을 쌓는 자이다. 기록된 자료는 사회 교화에 활용되며, 그 공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성실한 악역도 깨달음의 길이 있다

도둑이나 범죄자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다음 생의 기반이 되며, 이는 '역할의 충실함'이 곧 공덕임을 뜻한다.

## 지속되는 만남의 이유

검사는 도둑을 단순히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사회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도둑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검사를 찾아오게 된다.

## 의사와 환자도 같은 인생의 기운

의사는 환자와 같은 인생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되며,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알아내고 정리해 공덕을 쌓아야 한다. 환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단지 의료 기술자에 머무를 뿐이다.

## 모든 관계는 학습의 장

교사와 학생, 시신을 다루는 연구원과 유가족 등 모든 직업은 그 안에 학습의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의 장이다.



# 『정법강의 18강 가이드북: 국익에 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까요?』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현재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는 이익이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는 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익에 반하는 일은 실재하는가?

표면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국익이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국제적 균형과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 외국계 기업과 대한민국의 현실

외국계 기업의 성장과 국내 기업의 쇠퇴는 경영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젊은이들이 외국계로 가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인간 중심의 경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채무자

한국전쟁과 이후 산업 발전에서 국제사회의 희생과 지원이 컸음에도, 우리는 그에 대한 환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침투의 원인이 된다.

## 환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받은 도움은 물질이 아닌 지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인류가 당면한 과제, 특히 복지사회 구축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 기여야말로 진정한 값음의 방식이다.

## 젊은 세대의 역할: 모순을 드러내라

당장 국익에 반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젊은이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연구하여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깨우는 행동이다.

## 신뢰 회복은 인류 기여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류를 위한 지적 프로젝트에 앞장서야 한다. 신뢰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에서 비롯되며,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사명: 복지사회 패러다임 구축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복지사회의 올바른 패러다임 구축이다. 이를 설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대한민국 지식인에게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가장 필요한 지적 환원이 된다.

# 『정법강의 19강 가이드북: 자식 – 1. 유산』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당시 형편상 키울 수가 없어 유산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되는데 어떻게 참회를 해야 합니까?

## 죄책감은 진화의 신호다

유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인간이 진화하여 생명과 영혼의 소중함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반성은 깨달음의 시작이며, 그 자체로 이미 참회의 문을 연 것이다.

## 자식은 갚아야 할 인연

자식은 전생에 못 다한 일을 해소하거나 죄를 갚기 위해 오는 존재다. 본능적으로 자식을 원하는 마음은 인연과 숙업을 해결하려는 우주의 섭리에서 비롯된다.

## 임신 100일 이후는 영혼의 연결 시점

태아에게 영혼이 지정되는 시점은 임신 후 약 100일이다. 이후의 유산은 차원세계를 떠난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며, 이는 빙의나 집착 등의 문제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떠도는 영혼, 동자의 의미

유산이나 요절로 육신을 얻지 못한 영혼은 이승에 머물며 '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은 어머니 곁에 머무르며 위로받기를 기다리기에,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하다.

##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천도나 종교적 의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깨달음과 사과이다. 이것이 있을 때 영혼과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 후손을 위한 깨우침의 전수

차원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정리는 후손에게 큰 자산이 된다. 과거의 무지를 교훈 삼아, 다음 세대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참된 참회다.

# 『정법강의 20강 가이드북: 자식 – 2. 자식이 없는 경우』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자식으로 오는 건 갬을 빛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갬을 빛이 없는 건가요?

## 직접적 vs 간접적 빛의 의미

모든 사람은 빛을 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자식은 직접적으로 갬을 빛의 형태이며, 자식이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회를 통해 갬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 지적으로 빛을 갬는 시대

오늘날은 지적 공헌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소멸해야 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육체적 희생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사회를 위한 지적 기여가 공덕을 이루는 핵심 수단이다.

## 자식 없는 삶의 새로운 방향성

자식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회 전체를 자식처럼 여기고, 사회에 보람 있게 기여하는 삶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곧 인생의 참된 공헌이 된다.

## 30%는 자식, 70%는 사회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는 30%의 에너지를, 나머지 70%는 사회에 공헌하라는 것이 정법의 핵심 원리다. 자식에게 지나친 집착은 자신과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 희생의 시대에서 공생의 시대로

과거 세대는 자식을 위해 70%를 희생했지만, 그로 인해 자식에게 빛을 물려주었다. 이제는 각자 자기 죄는 스스로 해결하는 시대이며, 이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 이로운 방향이다.

## 지식 사회의 삶의 법칙

지식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야 한다. 자식을 위한 지나친 희생은 낡은 관념이며, 공공을 위한 삶이 바른 길이다.

# 『정법강의 21강 가이드북: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가족들이 모든 집안 문제를 저에게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럽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니다**

가족의 모든 짐을 떠맡으며 살아온 이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답일 수 있다.

## **떠나야 집안이 살아난다**

내가 집안에 머무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결국 나는 병들게 된다. 집안의 어려움은 내가 떠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대자연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 **부모를 살리는 이타적 선택**

부모를 위해 남아 있는 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며, 오히려 부모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부모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독립하여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 **성공은 자식의 의무다**

가정의 무게를 벗어나 자식이 성공하면, 그 순간부터 가정의 흐름이 바뀌고 잘되기 시작한다. 이는 가정의 희망이 결국 자식에게 있다는 뜻이며, 자식이 정신을 차려야 집안이 일어난다.

## **공부할 재목인가, 아닌가**

자식이 진정한 열망과 설득력을 갖춘 경우, 부모는 집을 팔아서라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해도 변화가 없는 자식이라면 과감히 그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가정에도 법칙이 존재한다**

희생이 무조건 선은 아니며,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있다. 가정의 법칙은 결과를 통해 옳고 그름을 보여주며, 이를 아는 것이 진정한 깨우침이다.

# 『정법강의 22강 가이드북: 어제 정보로 오늘 사람을 대하지 마라』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 NA

## 사람은 늘 변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라

사람은 언제든지 충격이나 깨달음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어제까지의 정보로 오늘의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

## 오늘의 사람으로 대하라

과거의 잘못이나 인연을 덧씌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바탕으로 사람을 바라보라. 그 사람과의 에너지 교류는 현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사람은 최고의 에너지원이다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는 제한적이며, 진정한 활력은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람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70% 이상이며, 이는 에너지 순환의 핵심이다.

## 탁한 에너지를 맑게 바꾸는 힘

상대의 부정적 에너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정화되어 강한 에너지로 바뀐다. 이를 통해 자신도 성장하고 남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사람을 통해 나를 깨우쳐라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부족했음을 깨달으면 감사함으로 승화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나의 버릇이 고쳐지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 미움은 나를 가두는 족쇄다

상대의 과오를 계속 미워하면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채지 못한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면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

## 대자연의 법칙: 나에겐 남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

상대는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나는 남을 미워하거나 이용할 자격이 없다. 이 원리를 알고 사람을 대하면 모든 만남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

## 원문 관련 부분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면, 내 에너지가 업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하더라도, 고맙게 받아들이면 그 기운이 정화되어 맑은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탁한 에너지는 무겁기 때문에 맑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화되면 엄청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탁한 에너지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내 기운으로 바뀌면 에너지가 업이 되고, 그로 인해 남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 요약 판단

따라서 사용하신 문장:

“상대의 부정적 에너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정화되어 강한 에너지로 바뀐다. 이를 통해 자신도 성장하고 남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스승님의 원문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논리를 충실히 요약한 형태입니다.

특히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정화된다”, “내 기운으로 바뀌면 에너지가 업이 된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라는 표현은 요약 문장과 일치하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해당 문장은 원문을 충실히 요약한 창작 문장으로, 의미는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정법강의 23강 가이드북: 공적인 삶 – 1. 자존심』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공인의 삶을 살고 싶지만, 자꾸 자존심과 주변의 시선에 흔들려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존심은 기운이 큰 증거, 그러나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강한 편이며, 이는 기운이 크고 족대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존심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되면 나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해치게 된다.

##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자존심은 억지로 놓을 수 없지만, 자존심의 본질과 그 폐해를 바르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내려지게 된다. 겸손과 반성은 자존심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다.

## 공인의 기준과 역할

공인은 만인을 위한 삶을 사는 자이며, 사적 기준이 아닌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리만 공인이지, 진정한 공인은 그 자세와 삶의 기준에서 결정된다.

## 공인의 시대, 인본의 시대가 열린다

2013년부터 시작된 후천시대는 인본 시대이자 정법 시대다. '해동 대한민국'은 이 시대를 열기 위해 존재하며, 진정한 공인은 이 나라에서 처음 탄생하게 된다.

## 지식인에서 선지식으로, 그리고 공인으로

지식을 갖춘 자는 깨달음을 통해 하늘의 힘을 얻는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이 선지식이야말로 공인의 자격을 갖춘 존재이며, 인류를 위한 패러다임을 설계하게 된다.

##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명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최고의 희생을 먹고 자란 지식인이며, 이들이 공인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우리 부모 세대의 노력이 그들의 뒷받침이었다.

## 복지의 진정한 패러다임은 공인에게서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임시방편이었으며, 진정한 복지 사회를 설계할 지혜는 공인에게서 나와야 한다. 공인은 사회의 모순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자다.

# 『정법강의 24강 가이드북: 공적인 삶 – 2. 봉사』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복지와 공적인 삶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복지의 현실은 임시방편적이며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봉사와 복지는 무엇이며, 지금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 복지의 현실: 임시방편의 그늘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쌀이나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인구는 두 배가 되었지만, 복지 수급자는 수십 배로 늘어났고 이는 근본적 복지 부재의 증거다.

## 지식인의 책임과 각성

지식인은 사상과 이상을 논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지혜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 사회 구축은 지식인의 역할이며, 공적 사명을 자각할 때 진정한 봉사가 시작된다.

## 돈의 흐름과 당위성의 법칙

돈은 욕심이 아닌 당위성에 따라 움직인다. 과거 세대는 나라와 가정을 위한 공적인 당위성으로 돈을 벌었지만, 오늘날은 사적 욕심으로 인해 돈의 흐름이 멈췄다.

## 복지의 본질은 '봉사'가 아니다

진정한 복지는 시혜적 나눔이 아닌, 사회적 소외층과 함께 사는 길을 여는 구조다. 빵과 연탄을 주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봉사다.

## 봉사란 내 삶의 경고다

어려운 사람과 자주 마주치고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이는 나 또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봉사는 나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3:7 법칙과 삶의 경고 체계

간접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30%, 주변에서 직접 들리면 70%, 당사자를 직접 만나면 100%로 현실화된다. 봉사는 그 경고 체계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삶을 조정하라는 신호다.

## 지금은 복지사회를 설계할 때

지식인에게 돈보다 지식을 주었고, 이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복지사회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다. 올바른 복지 시스템은 이 시대 지식인이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 『정법강의 25강 가이드북: 공적인 삶 – 3. 어려움』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봉사와 복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결국 나에게도 어려움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진정한 봉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공적인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 현장학습이라는 대자연의 경고

미디어나 주변을 통해 들려오는 어려움은 나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다.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 자주 가게 되면 100%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대자연의 순환 원리다.

## 봉사가 아닌 경고 체계

우리가 봉사라 여긴 많은 활동은 사실 나에게 닥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현장 학습’이다. 깨우침 없이 활동을 반복하면 결국 내가 그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 지식인의 역할: 현장의 의미를 가르치라

현장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 어려움이 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다. 이것이 복지사업의 본질이며, 단순한 시혜 활동과는 다르다.

## 분별 없는 봉사의 위험성

불쌍하다는 감정만으로 베푸는 행위는 오히려 사람을 망치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진정한 복지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일어서게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돈과 일자리는 자격에 따라 온다

대자연은 정확하게 나의 신용도와 책임에 맞는 크기의 돈과 일을 보내준다. 10만 원 단위의 사람에게 1억 단위의 일을 맡기는 일은 대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 작은 일에 감사하며 올라가라

현재의 형편이 낯더라도 그 자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더 큰 신뢰와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대자연이 0.1mm도 틀리지 않게 돌아간다는 강력한 법칙이다.

## 어려움을 예방하는 바른 길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해도 원리를 바로 알고 실천하면 빠르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격에 맞는 일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공적인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 『정법강의 26강 가이드북: 물질봉사와 재능봉사』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한 물질적 도움보다는 직접 우물을 파주고 집을 지어주는 방식이라면 진정한 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NGO가 학교를 지어주는 행위는 교육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만큼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방식은 바른 봉사로 볼 수 있을까요?

## 신의 의도와 인간의 개입

어려움은 신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설정한 환경이다. 이를 깨닫기도 전에 물질적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봉사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교류를 통해 사람을 알아보고, 가능성과 의지를 분별해 가며 도움을 주는 방식이 바른 방향이다.

## 학교도, 우물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학교나 집을 지어주는 것조차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만 의미가 있다. 그냥 지어주는 행위는 해가 될 수 있다.

## 일자리를 주는 봉사, 인류 대민 봉사

진짜 봉사는 기술과 일자리를 함께 설계해주는 것이다. 직접 일을 하게 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인류 대민 봉사의 핵심이다.

## 프로젝트형 복지 설계의 중요성

재료 수급, 생산지 위치, 공급 흐름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설계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를 되살리는 복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복지는 정책이 아니라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 한국의 사명: 인류 기아와 실업 문제 해결

대한민국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설계를 통해 환원해야 한다. 명예퇴직자와 청년층의 역량을 활용한 인류 대민 봉사 프로젝트는 그 핵심 열쇠다.

## 홍익인간으로 가는 길

진정한 기업가, 진정한 리더는 인류를 위한 설계를 실현하는 자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지도자가 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쌓으며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이루게 된다.

# 『정법강의 27강 가이드북: 청년취업』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대학을 졸업한 자식이 취업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먹여주고 재워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며, 청년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청년 실업은 부모 책임에서 시작된다

취업하지 못한 자식을 부모가 부양하는 것은, 부모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자식을 키웠기 때문이다. 잘못된 키운 결과이기에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이다.

## 일자리와 돈벌이의 착각

사회는 '일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청년들은 '돈 벌 자리'를 찾고 있다. 이 착오 때문에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 실업은 끊이지 않는다. 바른 분별이 필요하다.

## 사회는 공부의 연장이다

20대는 학교 공부, 30대는 사회 공부의 시기다. 이 시기에 돈을 벌려 하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 품성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배움이다.

## 지식인은 무식한 일을 잘 못한다

지식인은 무식한 일을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현장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 무식한 일을 억지로 하며 고액을 바라는 건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지혜로운 성장 곡선: 20-40대의 길

20~30대까지는 배움의 시기이며, 40대가 되면 실력과 사회 경험이 쌓여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존중받고 대우를 받는다.

## 실력사회에서 인정받는 법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은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발탁된다. 사회는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우를 주지 않으며, 이는 정확한 사회의 분별 기준이 된다.

## 청년 교육의 방향

청년들에게 바른 기준과 사회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청년은 가르치면 잘 배우며, 바른 교육만이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 『정법강의 28강 가이드북: 기도하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일상 속 실수나 언성을 높인 일이 있을 때, 직접 풀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서 반성하며 축언이나 기도를 드리면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과거의 기도는 기복, 미래의 기도는 인본

예전 기도는 비굴하게 신에게 매달리는 형태였다면, 인본시대에는 자기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이다.

## 기도의 장소는 회개의 학교

교회나 절은 단순히 경을 외우고 빌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다.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영적 학교의 기능을 해야 한다.

## 진정한 기도는 말보다 행위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자체가 하늘에 올라가는 축언이다. 남을 위하고 내 자리에서 바르게 사는 삶 자체가 하늘에 닿는 기도이며,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 인간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존재

잘못해도 뉘우치고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며, 그 과정이 바로 용서의 길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중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자세가 핵심이다.

## 비굴한 기도 대신 겸손한 실천

비굴하게 비는 기도는 이제 끝났다. 겸손한 자세로 말없이 행동을 조심하고, 자중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 머리를 숙이고 걸으며 3일, 7일, 21일의 실천이 효과적이다.

## 하늘에 올리는 나의 보고서

나의 하루하루가 신에게 보내는 보고서다.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순간도 그대로 하늘에 전달되며, 반복되는 잘못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된다. 정직한 삶이 곧 기도다.

## 기도는 관계 회복의 출발점

상대에게 직접 사과하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나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상대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다. 진정한 기도는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 『정법강의 29강 가이드북: 남을 물질적으로 바르게 돕는 방법』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형제나 가까운 이웃 중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도와주고 싶지만, 스승님께서서는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득 되게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은 교정의 과정

하느님은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물질을 없게 하신다. 이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며, 그 사람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교정 단계다.

## 바르지 않은 도움은 방해가 된다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할 사람에게 무분별한 도움을 주면,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 결과, 돕는 이의 복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

## 물질은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라

물질로 도울 때는 반드시 일이나 조건을 통해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냥 주는 것은 법칙에 어긋나며, 도움도 아닌 해가 된다.

## 도움은 사람을 만드는 방향으로

상대의 상황과 의지를 파악한 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기 개발 없이 반복되는 의존은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한다.

## 조건 있는 빌려줌이 진짜 도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무조건 거절하거나, 조건을 제시해 맞교환을 유도해야 한다. 무조건적 나눔은 상대의 버릇을 망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하느님의 일을 돕는 방법

하느님은 사람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어려움을 주신다. 내가 바른 기준으로 돕는다면 하느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 물질을 가진 자의 사명

물질을 가진 자는 분별력을 갖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사람을 살리고, 길을 안내하며, 하늘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책임이 있다.

# 『정법강의 30강 가이드북: 이 시대의 아버지 상(像)과 여성 – 1. 여성 CEO』

강사명: 천공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사회적 역할은 해냈으나 가정 내 역할은 부족했고, 자식들이 독립한 이후 소외감과 회의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아버지상의 정립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1차 역할을 마친 아버지들, 새로운 전환의 시기

전후 폐허에서 국가를 일으키기 위한 1차 역할을 다한 남성들은 이제 내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회 변화 속에서 남성상은 정립되지 못했고, 지금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여성상 부재가 초래한 역할 공백

남성들이 사회 기반을 다지는 동안 여성들은 내면적 실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2차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음양의 균형이 깨져 여성상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 여성의 사회 진출과 모임 문화의 의의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나설 시점이다. 다양한 여성 모임과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방향성과 사명이 불명확하다. 여성들이 바르게 설계된 목표를 갖고 활동해야만 진정한 여성상과 사회 기여가 가능하다.

### CEO 여성상, 바른 여성상과의 괴리

현재의 여성 CEO들은 고급 일꾼일 뿐, 본래의 여성상인 '만인의 어머니'와는 거리가 있다. 사회적 책임과 감수성이 결여된 여성 CEO는 오래가지 못하며, 남성과의 갈등과 몰락이 뒤따를 수 있다.

### 여성이 할 일을 정립해야 남성도 다시 선다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찾고 빛을 내야만 남성들의 다음 역할이 정립된다. 여성들이 설계하고 창출하는 과정이 음양 조화의 핵심이다.

### 경쟁이 아닌 조화, 진정한 여성상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을 어루만지는 감성과 포용력으로 사회를 이끄는 방식이 여성의 길이다. 여성 CEO의 시대가 끝나고, 바른 여성상이 설 자리가 열려야 한다.

### 아버지상은 성취 이후 내면의 깊이로 완성된다

단순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는 진정한 아버지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성취 이후, 가정을 중심으로 진심과 지혜로 이끄는 내면의 힘이 아버지상을 완성한다.

## 『정법강의 31강 가이드북: 이 시대의 아버지 상(像)과 여성 – 2. 복지와 인류 대민 봉사』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여성들이 복지와 사회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 민족이 인류 전체를 위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민족의 상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 대한민국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민족인 이유

우리 민족은 세계의 문화와 지식을 깊이 흡수해 온 반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한국만이 인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사명을 지닌 유일한 민족입니다.

### 여성과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복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성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여성은 사회적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섬세함으로 복지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 1차 성장의 그림자, 2차 도약의 전제 조건

지금까지의 성장은 많은 문제와 오염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도약을 위해서는 이 그늘진 요소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 역시 여성들의 섬세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중소기업의 정체성과 복지 프로젝트

현재 중소기업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단순한 장사꾼으로 전락했습니다. 복지 중심의 대민 봉사 프로젝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본질 회복과 국가 경제 기반의 재정립이 가능합니다.

### 복지와 교육·환경이 통합된 사회 시스템

복지 패러다임이 올바르게 자리 잡히면 교육과 환경 문화도 정립됩니다. 이는 사회 구조 전체를 개선하며 실업 해소, 교통 및 주택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 여성과 남성, 상호 이해 부족의 한계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핍은 이 상호 불이해에서 기인하며, 올바른 관계를 위해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버지·어머니 상과 민족 상의 정립

복지와 대민 봉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가정에서는 부모의 올바른 상(像)이, 국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적 상이 형성됩니다. 이는 국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정법강의 32강 가이드북: 이 시대의 효 – 1』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부모님을 위해 곁을 지키고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까? 지식사회에서 효의 개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

### 효의 본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효의 핵심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곁에서 병간호하거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자식이 바르게 살아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이 효인가?

과거엔 부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효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아픈 것은 자식이 제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며, 이를 깨닫는 것이 선지식인의 역할입니다.

### 큰일을 하는 자식이 오히려 더 효자다

사회적 역할이 커질수록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야 하지만, 그로 인해 사회를 이롭게 하면 부모는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님 곁에 머무는 것만이 효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 부모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효를 막는다

자식이 부모만을 위해 살면 결혼도,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참된 효는 집착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 내 부모만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한 삶

내 부모만을 위하는 삶은 결국 부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회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내 부모에게도 진정한 효를 하게 됩니다.

### 물질적 풍요가 자식을 해칠 수 있다

자식을 위한다며 물질만 주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자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자 부모 사랑입니다.

### 효는 자식이 할 일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효자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때 대자연이 효자를 만들어 줍니다. 자식이 바르게 살면 부모도 아프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삶 속에서 부모도 자연히 귀하게 여김받습니다.

# 『정법강의 33강 가이드북: 이 시대의 효 - 2』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를 돌보며 고생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효는 누구에게 해당되며 부모님은 행복하실까요?”

## 효는 모든 자식의 공동 책임이다

부모님이 아픈 것은 옆에서 돌보는 자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할 일을 다했을 때 부모는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 집안의 포지션, 그리고 뒷바라지의 의미

한 가족 안에서도 지식, 경제, 기술, 인간관계 등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며, 그것이 끝나면 보람 있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뒷바라지의 완성은 '보람 있는 삶'의 설계에 있다

희생한 자에게도 보람 있는 일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의 마무리입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열어줘야 진정한 효가 완성되며, 그것이 집안과 사회가 바르게 가는 원리입니다.

## 부모의 걱정은 효의 부재를 말해준다

자식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희생만 하고 있다면 부모는 걱정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구조는 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갓춘 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식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지위를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갓춘 것을 바르게 사용해 희생한 가족 구성원을 기쁘게 해야 진짜 질 높은 일을 한 것입니다.

## 부모의 병은 자식의 역할 실패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병은 자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뒷바라지한 자식만의 책임이 아니라, 바르게 성장한 자식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효의 완성은 모두가 즐거운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

희생한 자도, 성공한 자도 모두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때 부모는 여한 없이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며, 이 원리를 통해 집안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 『정법강의 34강 가이드북: 대학생 취업 – 1. 취업과 창업 중 선택』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질문자 의문 요약

“대학 졸업 후 적성에 맞지 않는 취업과 실패가 두려운 창업 사이에서 어느 길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 적성을 알기 위해선 해봐야 한다

처음부터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 적성을 논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적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 학교 이후, 사회에서의 공부가 시작된다

학교 공부는 기초일 뿐이며, 사회는 실력 향상의 실습장이 되어야 합니다. 졸업 후 사회에서의 경험은 ‘공부의 연장’으로 여겨야 합니다.

## 실력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기초 학습 → 현장 학습 → 실습이라는 3단계가 실력 완성의 기본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대우받게 됩니다.

## 실력사회, 학벌이 아닌 능력이 기준

지금은 학벌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하버드를 나와도 실력이 없으면 천한 일밖에 할 수 없으며, 실력자는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 공부하는 자세로 사회에 임해야 한다

졸업 후에도 여전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사회에 임해야 하며, 100% 대우를 기대하지 않고 70% 대우만 받으며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사회는 돈 줄 사람이 아닌 일할 사람을 찾는다

사회는 일꾼을 원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일하려는 자세보다 돈을 벌기 위한 자세로 사회에 나오니, 일자리가 없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 대기업 취업,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나 경제적 조건에 치우쳐 지식인이 무식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배울 수 있는 곳이 우선입니다.

# 『정법강의 35강 가이드북: 대학생 취업 – 2. 취업임용시험』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대학 졸업 후 창업을 시도해도 될까요? 창업보다는 취업시험을 통한 입사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 **창업은 ‘공부’로 접근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창업은 절대 성공을 목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사회 공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무리한 창업은 집안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 **보수 지식인과 진보 지식인의 창업 가능성**

보수 집안은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창업의 실패를 견딜 수 있지만, 진보 지식인은 창업보다 기존 조직에서 배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미 갖춰진 시스템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가 남이 구축해놓은 시스템 속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직접 차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큼니다.

### **취업시험은 사라지고 실력 중심 사회로 간다**

앞으로 채용은 단순 시험이 아닌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인성과 사상이 실력만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단순히 직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는 일을 하려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 **지식인의 책임: 올바른 구조 정립**

지식인은 창업이든 취업이든 바르게 설계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삶이 지식인의 사고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실력에 맞는 보상, 지나친 욕심은 사라진다**

실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고, 충분히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욕심도 줄어듭니다. 무리한 경쟁보다 정확한 실력과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 『정법강의 36강 가이드북: 대학생 취업 – 3. 벤처 창업』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대학생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벤처 창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요? 또 과거 벤처 기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 **정부 지원 벤처 창업은 실패를 부른다**

국가 지원을 받은 벤처 창업은 대부분 실패하며, 결과적으로 학생과 국민 모두가 빚을 지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해가 되는 방식입니다.

### **창업은 경제 기반이 있는 가정의 선택지다**

창업은 실패를 감수하고 공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고통받게 됩니다.

### **진보 지식인과 창업은 맞지 않는다**

진보 지식인은 창업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연구에 집중해야 하며, 창업을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이템이 있어도 창업보다 협업이 바람직하다**

기술이나 아이템을 개발한 경우, 직접 창업하기보다 대기업과 협력해 기술을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방식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 **기술직과 인문직의 역할 차이 인식**

기술직은 노동자 성향이 강하며, 인문 지식인과는 역할과 본질이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길을 가야 실패 없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벤처 기업의 실패는 구조적 문제**

정부 주도의 벤처 육성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며, 진정한 지식인은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식인은 경쟁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 『정법강의 37강 가이드북: 조기 경제교육 – 1』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아이의 경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가르치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 **경제 교육은 '돈 쓰는 법'이 아니라 '기운을 심는 것'**

통장 관리나 용돈 사용을 가르치는 것이 경제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돈을 쓰는 방법은 가르칠 수 있어도,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를 노름꾼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 **돈이 아닌 사람을 통해 경제인을 만든다**

아이를 경제인으로 키우려면 경제인을 자주 접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인의 기운을 직접 받는 경험이 아이의 기질을 형성하며, 이것이 가장 바른 경제 교육입니다.

### **기운의 법칙: 누구와 접했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아이의 미래는 어릴 적 어떤 사람들과 얼마나 접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자, 연예인, 과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아이의 진로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 **직접 키우지 못하면 '기운 있는 환경'에 맡겨라**

우리 집에 경제인이나 과학자가 없다면, 아이를 그 환경 안에 넣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기운은 전염되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 **선생님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한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존재이지, 월급을 받는 직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직장인으로서의 선생은 지식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무식한 구조입니다.

### **직업이 아니라 인생 기운을 심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직업 중심의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 속에서 자라게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교육은 기운을 바르게 전이하는 데 있습니다.

# 『정법강의 38강 가이드북: 조기 경제교육 - 2』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 하며, 유대인처럼 어릴 때부터 경제활동을 시키는 것은 옳은 방향일까요?”

### **기운은 나이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어릴 때와 성장하면서 받는 기운은 다르며, 부모와 집안이 어떤 기운을 불러오는지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부모의 삶의 자세가 곧 자식의 운명이 됩니다.

### **경제 교육은 인물 접촉에서 시작된다**

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 진짜 경제 교육입니다. 어떤 사람과 접촉하느냐가 아이의 기질과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 **유대인 교육의 본질과 한계**

유대인은 국제사회에 공헌했기에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유대인의 방식이 정답은 아니며, 대한민국은 ‘평화’로 인류에 기여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평가의 시점**

단일 민족으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국제사회에 기여할 시점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민족으로 평가받을 때가 곧 도래합니다.

### **삶의 수명 연장은 '할 일을 하기 위함'이다**

현대는 수명이 늘어났지만, 이는 할 일을 다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50대부터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며, 인생의 보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 **자식에 대한 정성은 30%로 제한해야 한다**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30% 이상을 넘어서면 부모와 자식 모두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기 삶의 70%는 자기 몫으로 살아야 합니다.

### **내가 기쁘게 살아야 조상의 한이 풀린다**

효도란 절이나 형식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보람되게 살아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도는 나의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 『정법강의 39강 가이드북: 실패와 성공,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거쳐야 할까요? 또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 **실패는 과거의 방식, 이제는 실패 없는 시대**

실패는 무식했던 시절의 진화 수단이었으며, 오늘날은 지식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사회입니다. 이제는 정확한 원리와 법칙을 바탕으로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 **장사와 사업은 다르다**

장사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1안에 해당하고, 사업은 전략과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2안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장사가 아닌 사업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 **젊어서 고생은 구시대적 사고**

이제 고생을 통해 배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젊은이들은 고된 경험보다 보람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자기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재화는 이미 충분하다, 목표는 '보람'이다**

오늘날은 자원과 돈이 이미 사회에 축적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 모두가 즐겁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 **인본시대, 지식인의 시대가 도래했다**

2013년 이후 인본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대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지식인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비굴함 없이 보람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표준입니다.

### **부모 세대의 헌신은 사람다운 세상을 위한 것**

부모와 사회가 자녀 교육에 헌신한 이유는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지식인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 **지식은 경험이 아닌 활용의 시대**

젊은이들은 무작정 경험하기보다, 이미 갖춰진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패 없이, 정확한 전략으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 『정법강의 40강 가이드북: 실패와 성공,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 2』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성공을 위해선 젊은 시절 고생과 실패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진정한 사람다운 삶은 무엇이며, 지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사람이 사는 방법, 동물성과의 결별**

인간은 본래 동물적 본능에서 진화하는 중이며, 지식을 갖춘 자부터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인류에 이로움을 주는 삶입니다.

### **지식인은 홍익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지식을 갖춘 자는 약육강식이 아닌 희생과 이로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주체로 지식인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내 기쁨이 곧 조상의 천도**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조상의 한이 풀립니다. 제사나 기도보다 내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천도이며, 조상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 **지식인의 탄생은 국민의 헌신 덕분**

지식인은 노동자 국민들의 고생과 희생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노동자들이 즐겁게 사는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 지식인의 본분입니다.

### **고생 이후엔 보람 있는 일로 설계해야 한다**

고생한 사람에게 단순한 보상이나 여유가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의 기회를 설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2차 도약이며, 이를 이끄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입니다.

### **지식인의 무지, 국가의 정체를 멈추게 한다**

지식인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국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2차 도약을 앞두고 있으나, 설계와 방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 **이제는 2차 도약의 시기다**

고생과 뒷바라지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보람 있는 삶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식인들이 설계하고, 국민이 기쁘게 살아가는 2차 인생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 『정법강의 41강 가이드북: 자선냄비 기부』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자선냄비에 1억 원 기부처럼 익명의 큰 기부가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런 기부가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선냄비의 본래 취지 이해하기

자선냄비는 많은 금액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의 기부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나눔에 동참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큰 기부는 이 정신을 흐릴 수 있습니다.

### 기부의 ‘소리’가 가지는 상징

동전의 ‘땡그랑’ 소리는 나눔의 울림을 만들어내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파합니다. 반면, 고액 지폐의 ‘퍽’ 소리는 공명하지 않고, 자선의 본질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 고액 기부는 자선냄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1억 같은 고액 기부는 자선냄비가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선단체에 집중되면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 무분별한 기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기부가 상대를 돕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의존심만 키우고 자립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부는 기부자 본인에게도 해가 되며, 대자연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 지금은 돈보다 ‘사고’와 ‘지식’이 필요한 시대

지식 사회에서는 돈보다도 사람을 일깨우는 깊이 있는 통찰과 방향 제시가 더 절실합니다. 날카로운 한 문장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 정부와 국민, 올바른 관계 정립

정부는 국민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공공기관의 기록과 시스템을 활용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정당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 국민이 깨어야 정부도 바르게 선다

국민의 질이 곧 국가의 질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얼굴이며, 우리 스스로가 성숙해질 때 정부도 바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부도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정법강의 42강 가이드북: 동지 불공』

강사명: 천공 스승님 강의일자: 미상 강의장소: 미상

## 질문자 의문 요약

“동짓날 팔죽을 뿌리고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전통은 본래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풍습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 **동지 불공과 팔죽의 유래, 그리고 오해**

팔죽은 귀신을 쫓기 위한 미신적 믿음에서 유래되었으며, 동지 불공 또한 무속적 신앙이 결합된 관행입니다. 이는 본래 불교의 가르침과 무관한 방편이었습니다.

### **오늘날은 미신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

정법 시대인 오늘날, 미신과 기복 신앙에 기대는 삶은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면 귀신도 가까이하지 않으며, 기도보다는 삶의 올바른 운영이 필요합니다.

### **바르게 살지 못하면 감각이 무뎈진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바르게 살면 삶의 감각이 살아나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흐트러지면 감각이 무뎌져 잘못된 선택과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 **조상 기도보다 중요한 건 바른 삶**

조상을 위한 최고의 효도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공부를 시킨 이유가 다시는 자신들처럼 빌며 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 **절과 교회는 배우러 가야 한다**

오늘날 절이나 교회를 가는 목적은 기도가 아니라 배움이어야 합니다. 선지식이 있다면 가르침을 구하고, 없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 **팔죽과 제사의 방편적 의미**

팔죽과 제사는 조상들이 건강과 가정 화합을 위해 만든 방편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건강한 영양 섭취와 가족 간의 화목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 **인본시대에는 무릎 꿇는 신앙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절하고 매달리며 비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본시대에서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하늘은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